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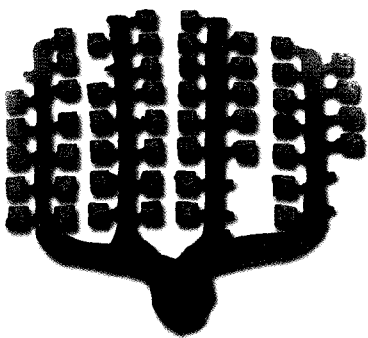
“손보기 선생님은 고고학의 새 장을 연 우리 시대의 한기 기념관 영웅이지요”

〈파른 손보기 기념관〉 개관식에는 다른 행사와는 달리 제자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는 학계의 원로가 된 제자들은 저마다 가지고 있었던 손보기 선생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기념관 개관식을 축하했다.

이날 발표한 축사 중에서 최복규 공주석장리박물관운영위원장이 한 “선생님은 우리에게 슈퍼맨이셨다”라는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기 충분했다.

파른 손보기 선생은 거기에 있는 많은 제자들의 영웅이었고, 우리나라의 고고학계를 어둠 속에서 끌어올린 역사였기 때문이다. 선생님께 불손한 제자였다고 고백한 그를 만나 파른 손보기 선생에 대해서 좀 더 물어봤다.



공주석장리박물관운영위원장 최복규

〈파른 손보기 기념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파른 손보기 기념관〉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구석기 문화의 발견을 기념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석기라는 것이 손보기 선생이 없었다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손보기 선생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고, 석장리에서 그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석장리에 위치한 석장리 구석기 박물관과 파른 손보기 기념관은 그가 했던 열정을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배움터가 될 것입니다.

〈파른 손보기 기념관〉개관을 주도적으로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고고학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손보기 선생 기념관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 돼 왔습니다. 최근 선생님의 건강이 나빠져서 서두른다고 서둘렀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주인공이신 선생님께서는 자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후배들에게 격려도 해주시고, 충고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위안이 되는 것은 발굴 현장에서 언제나 함께 하셨던 사모님께서 오셔서 그 감회를 전하니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파른 손보기 선생만의 차별화된 연구방법이 있다면?

파른 손보기 선생은 학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60년대 당시에 과학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지질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등과 연계된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석장리의 유물이 수천 년에서 수만 년까지의 기록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금속활자의 우수성과 시기도 정확히 밝혀내 세계를 놀라게 했

습니다. 당시로서는 다른 학문을 끌어와서 무엇을 증명한다는 것은 꽤나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파른 선생이 그 일을 한 겁니다. 창의력과 모험정신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속활자 인쇄에 대한 실증연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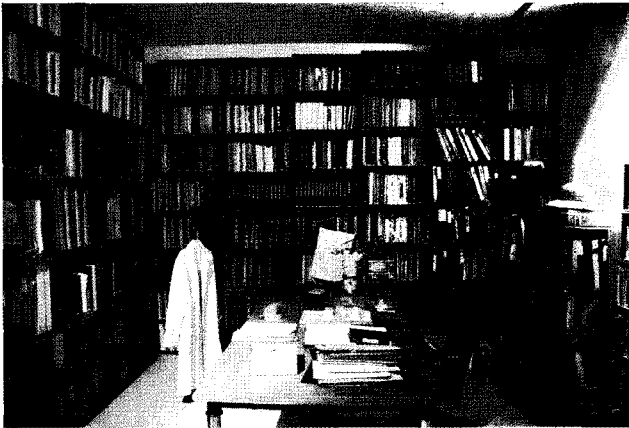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가 인쇄술입니다. 파른 손보기 선생도 우리나라의 인쇄문화를 자랑스러워하셨고, 그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판인쇄와 금속인쇄물의 차이점을 고배율 확대경을 통해서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목판인쇄물의 경우에는 먹물의 부분에 나무 나이트가 나타나지만, 금속은 수분을 흡수할 수 없어 멍울이 진다는 점을 알아내고,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속인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일본에 빼앗긴 조선 옥쇄를 찾아오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작업을 함께 했었는데, 손보기 선생은 언제나 우리나라 인쇄술에 대해 연구를 하고자 하시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인쇄 역시 누군가는 우리나라 인쇄의 가치를 알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손보기 선생께서 활자연구에 매진하셨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인영 선생님의 영향이지요. 활자 연구에 매우 활발하셨던 학산 이인영 선생님의 가르침은 손보기 선생의 미국 유학 시절 활자 연구의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자 연구의 첫 결실로 앞에서 말하였다시피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에 한국 금속활자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파른 손보기 기념관〉중 활자관 모습. 손보기 교수 사모님이 활자유물들을 살펴보고 있다



기념관에는 손보기 선생의 작업실이 그대로 옮겨져 있다.

보다 앞서서 사용되었다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1971년에는 <한국의 금속활자>를 출판하여 활자 연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석장리 구석기시대 유물발굴에 얽힌 이야기가 있나요?

손보기 선생의 가장 큰 업적은 석장리의 구석기 시대 유적 발견일 것입니다. 선생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고조선 이전이라는 믿음으로 전국을 답사하던 중 금강 유역의 석장리에서 주먹도끼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허가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선생께서는 수차례나 정부를 설득해 겨우 발굴 허가를 받았으나, 그 역시도 제약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 10여 차례나 되는 발굴 기간 동안, 유물을 발굴하기도 했지만, 정부에 발굴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대부분의 날들을 지세면서 보내는 경우가 허다했죠. 이렇게 힘든 날이 계속되어도 발굴에 들어가면 손보기 선생은 온 몸을 다해서 임했기 때문에 후배, 제자들이 마음깊이 따르는 것입니다.

기념관 안에 있는 손보기 선생의 가장 중요한 유물은 무엇일까요?

기념관에는 손보기 선생의 작업실이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파른 선생이 연구하던 공간을 그대로 옮겨 오으로써 그의 치열했던 연구의 흔적들을 조금이나마 사람들이 전하고 싶습니다. 손보기 선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유물, 유산은 아무래도 양심과 가치관이 아닐까 합니다. 손보기 선생은 언제나 후배들에게 성과도 중요하지만, 양심과 가치관이 이보다 우선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식이라는 목표만을 추구하다 보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잃게 되고, 그건 연구와도 멀

어지는 것이라는 뜻이었죠.

기억속에 손보기 선생은 어떤 분인가요?

제 기억 속에 손보기 선생은 온 몸으로 모든 일이든 밀어붙였던 사람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발굴할 때도 그랬고, 제자를 대할 때도 그랬습니다. 기억에 나는 중에 하나는 오래 전 석장리 발굴조사에 참가했을 때입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를 갓 입학한 스무살 학생이었는데, 석장리에 와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땅을 하루 종일 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 일을 하니 몸살이 나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동법도 없냐고 손보기 선생께 따져서 웃으면서 당돌한 녀석이라고 말씀하시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실 그때는 자신이 힘드니까 몰랐지만, 그때도 선생님은 학생들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발굴현장에서 발굴을 작업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피병으로 숙소에 누워 있는 저에게 먼 길을 걸어 곁을 사 오셨죠. 얼마나 죄송했던지요. 그때 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석장리구석기박물관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2006년 개관을 했지만, 아직도 발굴한 자료를 전시할 만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조성하고, 하나씩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장리구석기박물관을 다니시다 보면 조그만 팻말로 어떤 건물이 들어서게 될지에 대한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석장리구석기박물관도 진행 중이고, 파른 손보기 선생 기념관도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에만 시간을 투자해도 다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